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 대행 스님의 법문 중에서 발췌하여 답변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 편집자〉 ●보낼곳 : 우 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월드오피스텔 606호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인터넷: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 선원 ●FAX : (031)470-3116



대행 스님

제 1454 호 현대불교
2023년 10월 11일(음 8월 27일) 수요일 / 불기 2567년

바로 그 무심 속의 심지에다 불을 당겨라

우리가 대의적으로 따져 볼 때는 항상 한 마음 도리로서 돌아가지만, 또 너 나가 있듯이, 여러분한테 항상 말씀해 드리죠. 여기 오늘 처음 오신 분도 있고 듣지 못했던 분들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이 납득할 만한 기초적인 문제, 자기 자신을 먼저 믿고 알아야 한다는 그 사실, 항상 말씀해 드리지만 그래도 오늘 잠깐 또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부처님께서는 제일 처음에 사성제를 설했습니다. 고집멸도 사제법은 여러분 다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물리가 터지고 지혜를 얻고자 하는 분, 자기가 자기를 먼저 발견해야만이 자기 가정이나 사회나, 국가적으로나 세계적으로나, 우주적으로나 모든 것을 다 커버하고 자기가 자유자재권을 얻는다고 그렇게 생각하시고 가시는 분들은 똑바로 들으셔야 합니다.

항상 말씀드리듯이 인과로 인해서 뭉쳐진 여러분 속에 들어 있는 의식들, 모습, 생명 그것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고덩어리라는 얘깁니다. 우리가 벌써 이 세상에 태어났으면 고라는 얘깁니다. 우리 인간뿐만 아니라 짐승들도, 하다못해 지렁이도 어떠한 생명들도 다 고입니다. 쫓고 쫓기면서, 울면서 쓰라림을 당하면서, 짓밟히면서 일어서면서 이렇게 걸어가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여러분입니다.

그런데 왜 내가 사성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느냐 하면 첫째, 고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고를 어떻게 해야만이 멸하게끔 할 수 있고 또는 착이 없게 할 수 있느냐는 얘깁니다. 도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해야만이 그 고 하나를 없애느냐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그 고를 없애는 도리를 일러드린 겁니다. 고만 없애면 집도 없어지고, 멸도 없어지고, 도라는 언어도 없어진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러분을 어떻게 인도했느냐는 얘깁니다.

"여러분한테 누구나가 다 오신통이 있다. 바로 그 오신통 가운데 숙명통이 컴퓨터다. 과거에 입력된 것이 거기에서 다 현실에 나오는 것이니까 거기에다 되입력을 한다면, 앞서에 입력됐던 인과, 유전 또는 영계, 세균, 업보가 녹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과거에 입력된 게 지금 현재에 나오는 거니까 운명 팔자 타령하지 말고 거기에다 놔라 이랬습니다. 거기에다 입력을 다시 시키는 반면에 앞서의 입력됐던 것이 없어지니까 모두 무너집니다. 지옥고도 무너지고 그 업보에, 그 유전에, 영계에 끄달리는 모든 것이 다 무너집니다.

무너지는 반면에 뭐가 없어지느냐 하면 착이 없어집니다. 그러면 한군데다 놓고 들고 나고 이렇게 하는데 몇 가지가 없어집니까? 그러니 이론으로 달달달달 외울 생각을 하지 말고 백 번을 외우는 것보다도 한 번 실천하는 그러한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공부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날더러 모든 것을 체계 있게, 일관성 있게 설법을 해달란다면, 그건 죽은 설법과 같습니다. 체계가 없으면서도 체계가 역력하게 있는 그런 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고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과거에서 나오는 거든 보이는 데서 나오는 거든 둘이 아니게 나오는 그 자체는 본래 공이다 이겁니다. 부처님께서는 "공과 색이 둘이 아니니라." 하셨는데 왜 그랬을까요? 왜 둘이 아니라고 했을까요? 그 참 중요한 말씀이었습니다. 색으로 보이는 여러분 마음이나, 보는 거나, 듣는 거나, 말하는 거나 모두가, 가고 오는 것도 고정됨이 없습니다. 고정된 게 없으니 색과 공이 어떻게 둘이겠습니까? 그래서 그 하나만 없앤다면 여러분은 밝은 심안의 심지에 불을 당길 수가 있다 이 소립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와 같이 그렇게 '고니까, 그것은 내가 면할 수가 없지, 나는 중생이니까.' 이렇게 자기를 포기하고 자기를 무시하고 자기를 믿지 않는 거는 진짜 부모한테서 자기는 물러서서 다른 부모 찾으려고 애를 쓰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런데 여러분한테 제가 인도하는 길은 '주인공에서 나오는 거니까' 라고 하는 겁니다. 그건 오신통을 비유한 팩스나 천체 무전통신기나 또는 탐지기나 망원경이나 숙명통 컴퓨터나 레이더망에서 지금 오고 가는 걸 다 책정하듯이 그렇게 모두 하고 있는 누진통까지, 전체 시스템이 돌아가는 그거를 몽땅 한데 합쳐서 거기서 나온 거니까 거기다가 맡겨 놓고, 잘못된 거는 거기서 다시금 잘되게 할 수도 있고, 잘된 거는 감사하게 거기 놓고 가라고 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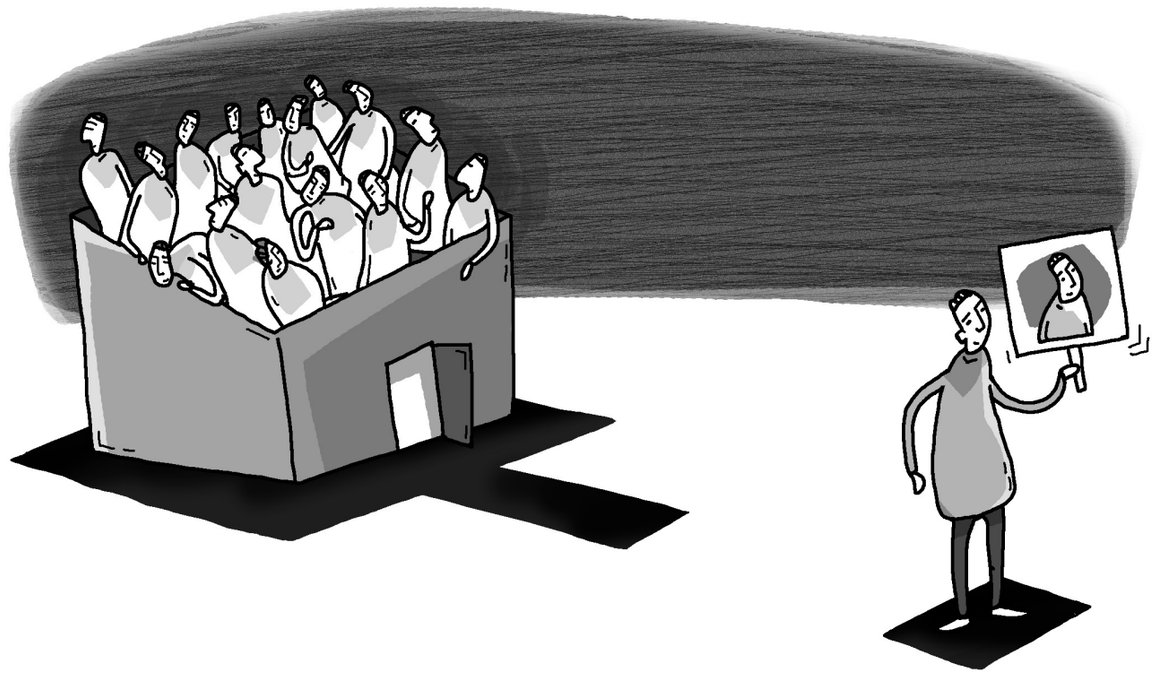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이것이 바로 일체 자기라는 게 없이, 공해서 자기라는 건 없습니다. 그거를 몽땅 거기다 놓고 작업을 한다면 잘되는 것도 거기, 못되는 것도 거기, 그렇게 모든 것을 놓고 간다면 바로 그게 고를 녹이는 작업입니다. 고를 녹이다 보니깐 착도 없어져 '야, 그것이 누구 탓이냐? 내 탓이지.'

그것이 바로 좌선이고, 마음이 편안해야 좌선이지 어찌 몸이 편안하게 앉았다고 해서 좌선이 될 수 있겠느냐 하고 생각을 하면서 모든 것을 놓을 때, 모든 착도 다 없어지고 욕심도 다 없어지는 것입니다. 할 말만 하고 묵묵히 걸어가는 그 발 한 걸음 한 걸음이 그렇게 법전에서 떨어지지 않죠. 그러니까 이 세상을 다 딛고 가는 거나 똑같은 거죠. 평발이죠. 말 한마디, 무겁게 평등하게 부드럽게 해 주는 그 말 한마디가 온 천하에, 법계에 두루 하니 그게 법에서 떨어지지 않는 거죠. 한데로 떨어지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도 많겠지만, 지금 절에서 승려들도 그렇게 가르치고 강원에서도 가르치고 그러지만, 그전에도 얘기했듯이 백지부터 갖다 놔야, 책 종이부터 갖다 놔야 연필을 들 수 있다 이 소리입니다. 여러분의 바탕이 그렇게 주어져 있기 때문이라고 항상 말씀드렸죠. 여러분의 바탕이 지수화풍의 바탕이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그 재료, 광력, 전력, 자력, 통신력이 충만하게 재료로 갖추어져 있으니, 그 오신통은 바로 법바퀴를 굴려서, 불바퀴도 되고 물바퀴도 되니 그거를 굴려서 자유스런 자유인이 되라 이 소리죠. 처음 오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이런 말을 항상 되풀이하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반야심경이든지 뭐든지 달달달달 외우는 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금강경에도 "아뇩다라샴먁삼보리의 그 법도 없느니라. 그 법 안에 그 뜻도 없느니라." 이랬을 때는 그 뜻을 아시겠습니까? 아무리 금강경을 달달달달 외운다고 그래도 그 안에 그것도 없느니라 한 뜻을 아시겠습니까? 보살은 이름해서 보살이니라. 그런데 내가 건졌다, 내가 건질 수 있다, 내가 건지겠다, 나다, 이렇게 하는 그런 사람들은 보살 될 자격이, 이름해서 보살이라는 그 이름 들을 자격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입으로만 달달달달 외워서 강의를 해 주는 것도 이름해서 보살이라는 그 자체의 이름조차도 가질 수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나는 사성제에서 제일 첫머리의 고만 없앤다면, 여러분은 그대로 저절로 도라는 언어도 붙지 않는 그 도를, 그대로 자유스럽게 대권을 얻을 수 있지 않겠느냐는 얘깁니다.

지금 세상에 80까지 산다 하더라도 이 몸을 가지고 도저히…, 그러면 또 이 몸을 벗고서 공부를 할래도 또 그 타령이 그 타령이야. 도루묵이야. 그러니 몸이 떨어지기 전에 이 뜻을 알고 가야 될 것 아니냐는 얘깁니다. 그래서 요다음에 나와도 뚜껑만 열면 나오게끔요. 어떠십니까? 트릿하게 공부하시겠습니까? 누가 대신 먹어 줄 수 없는데요. 이 공부는 틀림없이 대신 먹어 줄 수도 없고, 죽을 때에 같이 가 줄 수도 없고, 똥 눠 줄 수도 없듯이 대신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항상 영원히 같이 둘이 아닌 도리를 아셔야 되겠기에, 사성제의 첫머리의 고덩어리를 녹이는 그 작업만 해라 이런 겁니다, 토막토막 한 토막씩. 이제 이건 이쯤 해 두고요.

옛날에 무착 대사가, 저 치악산에 있을 때 그것도 얘기 들었습니다마는, 뭐, 꿩 치(雉)

☞ 18면으로 계속

